



# 각종 감염병 위험... 예방접종으로 대비해야



## 봄철 멧돼지들의 건강관리는...

심장사상충 연 1회 감염여부 검사 필요  
항사·미세먼지는 안과·호흡기질환 유발  
비타민 등 풍부한 먹이로 피부병 예방도

“봄 강아지 제 오시네~”

“봄 처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제주 곳곳에 꽃들이 서로 늦을세라 여러 향기들을 품고 울긋불긋 솟아오르고 있다. 겨우내 움추렸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견공들도 이제 마음껏 야외로 나갈 수 있을 때다. 물론 전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예년에 비해 다소 그 기회가 줄어들긴 할 테지만 그래도 사회적 비대면의 장기화로 인해 도리어 우리의 견공들 입장에서 보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은 이외의 수확(?)이라 할 수 있겠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강아지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봄철을 맞아 각종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이러한 감염병으로 부

터 사전에 차단해야만 한다. 또한 각종 외부기생충이 막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라 이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한다. 심장사상충은 1년 내내 한달에 1회 예방을 해야 하며(매개체가 모기이며 요즘은 온난화의 영향과 공동주택의 주거양식이 많아 계절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또한 한달에 한 번 꾸준히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고 있더라도 연 1회 심장사상충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좋다.

최근 뉴스에는 매년 그러하듯이 서쪽에서 유입되는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일기예보가 부쩍 잦아졌다. 황사, 미세먼지 등은 안과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산책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야외활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시기에 방문하는 환축들 중 갑자기 결막염을 앓고 있거나 재채기 등 호흡기 관련 증상을 보이는 개체들의 대부분은 공기 중 오염물질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청결에 신경 쓰고 야외활동을 줄이면 그 증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된다. 그 외에 제주의 하늘을 노랗게 물들이는 삼나무, 송향나무 등도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꽃가루는 강아지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일반적인 증세로는 눈곱이 많이 끼거나 콧물이 흐르며, 귀나 전신을 심하게 긁어 피가 나기도 한다. 혹은 밥을 잘 먹지 못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한다. 자칫 2차 감염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는 완치보다 증세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꽃가루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집안에서는 꽃가루가 날리는 시간에는

문을 열지 말고 최소한의 환기만 해야 한다. 공기청정기를 상시 켜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외출 후에는 몸을 꼼꼼히 빗어 이물질 제거하고 오염물질을 털어내는 것이 좋다.

봄은 강아지들이 털갈이 하는 시기이다. 평소보다 많은 털들이 빠져 주변을 어지럽힐 테지만 사전에 자주 빗질을 해주어 털을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결상태를 유지해 각종 곰팡이 등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하며, 비타민A, 비타민B, 칼슘 등이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피부의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피부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멧돼지에게 너무 자주 목욕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땀샘이나 피지선이 없어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건조해진 피부는 각종 피부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목욕의 횟수는 2~3주에 1회 정도가 적정하다.

요즘 보호자들의 걱정 섞인 상담이 부쩍 많아졌다. “도토리가 요새 갑자기 잠이 많아졌어요. 어디 불편해서 그런거 아니가요?” “춘곤증입니다”

강아지도 춘곤증이 있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 수축했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이때 생체리듬의 변화로 춘곤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나 영양식보다는 산책이 훌륭한 약이 된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 영화관

### 명백한 멧

뮤지션 겸 작가인 요조가 최근 펴낸 에세이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은 예술가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답답하게 시작해 결국은 부푼 심장과 떨어지는 땀방울로 마무리되는 그녀의 취미 '러닝'처럼 그녀의 글도 답답한 서술이 끝나는 지점마다 아낌없이 데이지 않을 정도의 뜨거움과 다음을 약속하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어서 읽는 내내 씩씩하고 좋았다. 나는 2013년에 발매된 그녀의 앨범 '나의 슬픔'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앨범은 지금 생각해보니 전체적으로 우울한 정조로 가득했다. 당연히 쓴맛이 났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술가라는 말은 멋있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이 직업은 참 쓰고 슬프고 아픈 거구나.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후 출간된 이번 책에는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라는 호쾌한 문장이 있어서 좀 놀랄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얼마 전 본 영화는 그 뜨거움이 너무 생생해서 화면으로도 '불맛'이 느껴졌다. 대체적으로 2시간여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는 이틀테면 10%인 20분 정도만 봐도 대중 감이 온다. 내가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지와 없을지 그리고 영영 좋아하게 될지와 두고두고 미워하게 될지가 말이다.

내가 완전히 반해버린 '불맛'이라는 영화는 한 사내가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익숙한 고전 멜로인 줄 알았는데 그것과는 결이 좀 다른 과격하고 뜨거운, 명백하게 멋이 있는 예술가의 이야기로 제목은 '마틴 에덴'이었다. 이탈리아 감독 피에트로 마르첼로의 2019년 작품으로 마틴 에덴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한순간 욕망의 모호한 대상으로 단숨에 잠수해 스스로 물에서 뜨고 움직이는 법을 익히고 결국은 물보라처럼 사라져 버리는 강렬한 초상화에도 같은 영화다. 주인공 마틴 에덴을 맡은 루카 마리넬리의 강렬한 매력과 더불어 근래 보기 드문 진하고 뜨겁고 매운맛으로 필름 끊어오르는 작품이었다. 연출을 비롯한 모든 지점이 감탄할 만큼 멋이 넘쳐 흘렀는데 특히 예술가 캐릭터를



영화 '마틴 에덴'

연기한 배우라는 예술가가 명백한 멧쟁이로 기억에 남았다. 그의 연기 중 가장 흥미로운 건 작가를 꿈꾸던 마틴 에덴이 우연히 만나게 된 부잣집 딸 엘레나에게 반하는 순간의 연기였다. 청년의 눈동자 가득 이글거림과 일렁임이 가득한 장면이었는데 나는 여전히 마틴이 반한 것 중 무엇이 제일 먼저였는지 잘 모르겠다. 지적인 허영심과 색시할 정도의 자존감을 지닌 젊은 남자 마틴, 그리고 무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외모와 슬픈 거구나.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난 후 출간된 이번 책에는 '이 직업은 명백하게 멋이 있다'라는 호쾌한 문장이 있어서 좀 놀랄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얼마 전 본 영화는 그 뜨거움이 너무 생생해서 화면으로도 '불맛'이 느껴졌다. 대체적으로 2시간여의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는 이틀테면 10%인 20분 정도만 봐도 대중 감이 온다. 내가 이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을지와 없을지 그리고 영영 좋아하게 될지와 두고두고 미워하게 될지가 말이다.

이 걱정적인 서사의 캐릭터를 때려잡는, 마치 고희과도 같은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루카 마리넬리는 이 복잡하고 과격한 예술가의 세계를 눈부시게 체화하고 있다. 사랑에 눈이 먼 소년에서 난폭한 예술가의 심경 한복판에 이르기까지 이 영화도 그리고 타이틀 롤을 맡은 루카 마리넬리에게도 명백한 멧이 느껴졌다. 영화를 보고 나서 숨이 차오르기 직전까지 연기를 하고 그 연기를 카메라 너머로 지켜보는 모든 예술가들이 만났을 그 불을 나도 언뜻 목격한 것만 같았다. 멋이 넘쳐흐른다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아 달라는 것, 예술가들을 위한 찬사와 기도의 말을 하게 되는 작품들을 만날 때 관객은 명백하게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력서접수: 워크넷 (work.go.kr)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